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

김미선*

차 례

1. 머리말
2.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
3.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 3.1. 한문 교육에서의 일기 활용
 - 3.2. 당대 삶과 연계한 한시 교육에 활용
 - 3.3.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 교육에 활용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수업에서의 유희춘 문학 작품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필사본 『미암일기』와 문집 『미암집』이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기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문집에 유배시기 문학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는 점, 넷째, 유희춘 문학 작품이 현대에 번역 및 재가공되어 손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전남대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모색해 보았다. 첫째, 한문 교육에서의 일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쉬운 일기의 특성상 『미암일기』를 활용하여 한문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에게도 덜 두렵게 다가갈 수가 있다. 또 한문 수업을 통해 한자를 익힐 뿐만 아니라 유희춘·송덕봉과 같은 작가, 『미암일기』라는 일기문학, 일기와 문집의 관계 등 고전문학 관련 지식을 간략하게나마 배우게 된다면, 추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후 고전문학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당대 삶과 연계한 한시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희춘의 유배시를 교육하면서 유배 중간에 이배되는 상황, 유배지에서의 삶 등을 함께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또 유희춘 문학 작품을 통해 부부의 시를 함께 볼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부부가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고 화답시를 짓는 면모를 교육할 수가 있다.

셋째,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사본 『미암일기』의 내용이 발췌·요약되어 문집 『미암집』 안에 수록되는 과정, 아내 송덕봉의 시문이 『미암일기』 속에 전해져 현대에 문집이 편찬·간행될 수 있었던 것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외조부인 최부, 아내인 송덕봉의 문집 편찬에 크게 기여한 유희춘의 일화를 보며, 고전문학 주요 작가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유희춘, 『미암일기』, 『미암집』, 한문 교육, 한시 교육, 문집 편찬, 송덕봉

1. 머리말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조선 초기~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인재(寅齋), 별호는 연계(漣溪)이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순천에서 해남으로 이거한 유계린(柳桂麟)의 차남이다. 갑자사화 때 참형을 당했던 금남(錦南) 최부(崔溥, 1454~1504)의 외손으로, 1536년 송덕봉(宋德峯)과 결혼했다.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으로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고향과 가깝다하여 함경북도 종성으로 이배되어 19년의 유배생활을 하였다. 선조가 즉위한 뒤, 삼정승의 상소로 유배에서 돌아와 홍문관 부제학·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미암일기(眉巖日記)』와 『미암집(眉巖集)』을 남긴 그는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일기를 남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희춘의 문학 작품으로는 1567년 10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인 1577년 5월 13일까지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미암일기』와 원집 18권,

부록 3권 합 21권 10책의 목판본으로 1897년에 간행된 문집 『미암집』에 실린 시(詩)·소(疏)·서장(書狀)·서(書)·서(序)·기(記)·발(跋)·명(銘)·제문(祭文)·갈(碁)·잡저(雜著) 등이 있다. 문집의 권5~18에도 일기가 수록되어 있으나 별도로 전해지는 필사본 『미암일기』의 일부를 수록한 것이다.

유희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암일기』의 문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건축, 교육, 기후, 복식, 의학 등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 문

- 1) 구원희, 「朝鮮 中葉 士族孳子女의 贖良과 婚姻」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복원사림』 8, 경복사학회, 1985; 김대현, 「『眉巖日記』에 나타난 退溪 관련 기사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김미혜, 「『眉巖日記』 분석을 통한 16세기 士大夫家 음식문화 연구-丁卯年(1567年) 10月~戊辰年(1568年) 9月,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8,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3; 김연옥, 「古日記에 依한 古氣候 研究-眉巖日記를 中心으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0; 김호, 「16세기 후반 京·鄉의 의료 환경-『眉巖日記』, 『대구사학』 64, 대구사학회, 2001; 도지형, 「『眉巖日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미혜, 「16세기 양반가의 가족 관계와 家父長權-柳希春의 眉巖日記를 中心으로,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박찬희, 「16세기 兩班 남성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배수경, 「16세기 일기자료에 나타난 양반가의 가정 생활 비교 연구-『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송재용,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教育 및 科擧制度의 실상, 『한자 한문교육』 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송재용, 「『미암일기』에 나타난 서적 및 출판 관련 사항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占卜과 兆朕, 꿈과 解夢에 대한 一考察, 『한문학논집』 25, 근역한문학회, 2007; 송재용, 「『眉巖日記』의 글쓰기 방식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30, 동양고전학회, 2008;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1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우정임, 「『眉巖日記』를 통해 본 柳希春의 서적고류와 地方板本の 유통, 『지역과 역사』 26, 부경역사연구소, 2010; 유재엽, 「朝鮮 中期의 圖書 出版에 관한 一考察-『眉巖日記』의 記錄 研究, 『출판잡지연구』 11, 출판문화학회 2003; 윤소경,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민주, 「『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2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이민주, 「복식 장만과 관리를 통한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 『미암일기』를 中心으로, 『한국학』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柳希春의 『眉巖日記』를 中心으로,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이성임, 「朝鮮中葉 兩班官僚의 經濟生活에 관한 一研究-柳希春의 『眉巖日記』 분석을 中心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연순, 「『眉巖日記』를 통해

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는 한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²⁾ 미암 유희춘의 문학을 넓게 살피는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³⁾ 그런데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교육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살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등학교 교육에서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암일기』를 세 가지 일기 중 하나로 포함시킨 이인옥의 논문,⁴⁾ 고등학교 교육에서 『미암일기』를 활용한 생활사 학습 방안을 제시한 김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이연순,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不遷怒’의 실천 지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4, 이화어문학회, 2018 ; 이연순, 『『미암일기』에 나타난 인물평가 방식,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 이연순, 『『眉巖日記』의 저술배경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이연순, 『眉巖 柳希春의 日記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왕기·김석희,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가옥의 건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 정영민, 『眉巖 柳希春의 經筵活動 研究-『眉巖日記』에 나타난 經筵活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창권,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2002 ;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유정, 『『미암일기』를 통해서 본 16세기 양반가의 사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혜진, 『조선중기 士族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세영, 『『眉巖日記』의 의학 기록 연구,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1 등.

- 2) 김종성, 『眉巖 柳希春의 漢詩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삶의 軌跡에 따른 시 작법의 변모, 『한국언어문학』 101, 한국언어문학회, 2017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상상, 『한국시가문화연구』 2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의 수사적 표현 기법 상상, 『한국시가문화연구』 32,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의 典故 運用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 박명희, 『眉巖 柳希春 詩에 구현된 尊朱子 의식, 『국학연구문중』 9, 태민국학연구원, 2012 ; 박명희, 『眉巖 柳希春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 82, 한국언어문학회, 2012 ; 송재용, 『미암 유희춘의 시세계-한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동양학』 3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0 ; 송재용, 『眉巖 柳希春의 漢詩 研究, 『동양고전연구』 57, 동양고전학회, 2014 등.
- 3) 송재용, 『眉巖 柳希春의 文學世界, 『한문학논집』 40, 근역한문화회, 2015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32, 동양고전학회, 2008 ;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한국한시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06 등.
- 4) 이인옥,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선명의 연구 정도가 발견된다.⁵⁾

본 논문에서는 『미암일기』와 『미암집』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작품’이라는 범박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미암일기』와 『미암집』 소재 작품들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조선시대에 문집을 남긴 문인은 많지만, 필사본 일기와 문집을 함께 남긴 사람은 적다. 더구나 『미암일기』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일기이며, 문집 권5부터 권18에는 일기가 요약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미암일기』와 『미암집』은 함께 볼 때 교육적 활용 가치가 더 높다.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수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국어 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문학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하면서, 유희춘 문학 작품의 가치도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를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이후 3장에서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한문 교육에서의 일기 활용’, ‘당대 삶과 연계한 한시 교육에 활용’,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 교육에 활용’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2.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

『미암일기』와 『미암집』 소재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필사본 『미암일기』와 문집 『미암집』이 함께 전하고 있다. 『미암일기』

5) 김선명, 『『眉巖日記』를 활용한 생활사 학습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28, 웅진사학회, 2014.

는 현전하는 친필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도 의미가 있으며,⁶⁾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임진왜란으로 많은 자료들이 산실된 상황 가운데 기본 사료가 될 만큼 역사학적 의미도 크다. 또 당대의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일기문학으로서의 문학적 위상도 높으며, 일기와 문집이 함께 남아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료로서의 연구 가치도 상당하다.

형식이나 분량이 자유로운 일기 속에는 문학 작품의 삽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날에 쓴 한시, 시조와 같은 운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편지를 쓰거나 받은 경우 전체를 기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문학의 보고(寶庫)가 되기도 하여, 문집을 편찬할 때 일기 속 작품을 발췌하여 수록하기도 한다. 『미암일기』와 『미암집』은 모두 현전하여, 두 문헌에 수록된 한시, 편지 등의 작품을 비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문집 편찬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⁷⁾ 『미암집』에는 ‘일기’(권5~14), ‘경연일기’(권15~18)라는 제명 아래 『미암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방대한 필사본 『미암일기』의 일부를 수록한 것으로, 편찬자에 의한 작품의 요약, 선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집 편찬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기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 송덕봉(宋德峯, 1521~1578)의 이름은 중개(鍾介), 자는 성중(成仲)이며, 덕봉은 그의 호이다. 조선시대 여성 문인의 작품은 남성 문인에 비해 남아 있는 것이 적다.⁸⁾

6) 『미암일기』의 서지를 구체적으로 살핀 송재용에 의하면 1576년 8월 1일부터 1577년 5월 13일까지의 자필일기의 일부는 유실되었고, 현전하는 이 부분의 기록은 후인이 원본을 필사한 것이라 한다.(송재용,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4~65쪽)

7) 이와 관련 이연순은 『미암일기』의 일기문학적 의의 중 하나로 문집의 초고(草稿)로서의 기능을 언급하였다. 일기에 삽입된 시문은 문집에 실린 시문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은데, 첫째, 서간 중에서 가족들과 주고 받은 짧은 편지들, 둘째, 시조 세 수, 셋째, 기생을 노래한 시, 넷째, 완결된 작품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이 일기에는 남아 있으나 문집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였다.(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혜안, 2012, 241~247쪽)

8) 문희순은 여성의 문학 작품이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열악한 이유로 “전통시대가 여성의 문자행위를 보편적으로 꺼려했다는 점과, 그러한 시대 환경과 남성들에 의해 여성 스스로 암암리에 길들여지고 위축되었던 점”을 지적하였다.(문희순, 『16세기 여성시적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165쪽)

작품을 남기는 여성 자체가 드물었고, 문학 작품을 남겼더라도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송덕봉이 16세기의 대표적 여성 문인으로 인정받고 현대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⁹⁾ 『미암일기』의 역할이 크다. 유희춘이 일기에 아내가 보낸 편지, 아내와 수창한 시 등을 기록하여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을 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문희순의 연구에 의하면 현전하는 송덕봉의 한시 25수 중 『한국여류한시선』에 실린 <증친족송진(贈親族宋震)> 한 수를 제외한 24수가 『미암일기』에 실려 있다. 또 1718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덕봉문집병미암집』에도 21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순서가 『미암일기』와 거의 같다고 하였다.¹⁰⁾ 곧 이 필사본 문집에 실린 송덕봉의 한시도 『미암일기』에 수록된 것을 넣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 안동교는 2012년에 『국역 덕봉집』을 간행하였는데,¹¹⁾ 여기에서 대본으로 삼은 것은 2011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에서 편찬한 『덕봉집(德峰集)』이었다. 이 문집에는 『미암일기』에 있던 송덕봉의 한시를 비롯하여, 일기에 실려 있던 송덕봉의 편지 <미암에게 답함[答眉巖]>이 수록되어 있고, <『미암일기』에서 뽑다[眉巖日記抄]>라는 제목으로 일기 중 송덕봉의 행적이 나온 부분을 모아 놓았다. 이렇듯 『미암일기』 속에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이 담겨 있어, 이를 통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 문인 송덕봉의 문학 작품을

9) 김수희, 「16세기 동아시아 여성문인의 존재양상-明 黃峨와 朝鮮 宋德峰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62, 중국어문학회, 2018; 문희순, 「16세기 여성시각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송재용, 「宋德峯 文學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28,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송재용, 「女流文人 宋德峯의 生涯와 文學」, 『국문학논집』 15,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이성임, 「16세기 宋德峰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45, 호남사학회 2012; 정창권,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여성문학연구』 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한성금,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송덕봉과 허난설헌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5, 한국언어문화회, 2015; 한성금, 「여류시인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처방식과 지향성-송덕봉과 삼의당 漢詩를 중심으로」, 『한국시기문화연구』 41, 한국시기문화학회, 2018 등.

10) 문희순, 앞의 논문, 172~175쪽.

11) 안동교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 안동교·오석환 역, 『국역 덕봉집』,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2012.

함께 살펴보고,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교육할 수가 있다.

셋째, 문집에 유배시기 문학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유배는 오형(五刑) 중 하나로 과거 호남지역에 유배되었던 사람의 수만 보아도 928명이 확인된다.¹²⁾ 유희춘과 같은 문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유배지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한다.¹³⁾ 유희춘은 36세 2월에 종성에 도착한 이후 19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하였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종성에서 돌아온 후부터의 기록이라 유배생활의 모습은 살펴볼 수 없지만, 『미암집』에는 유배시기에 쓴 문학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미암집』의 권1~2에는 한시 28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143수가 종성 유배시기에 지은 것이다. 또 권3에 실린 서(書) 17편 중 2편인 <여김후지인후서(與金厚之麟厚書)>와 <답한씨매서(答韓氏妹書)>, 서(序) 3편 중 1편인 <기제세한정서(寄題歲寒亭序)>, 잡저 6편 중 1편인 <속몽구제(續蒙求題)>도 종성 유배시기에 지은 것이다.¹⁴⁾ 박명희는 이러한 유희춘의 시문을 통해 유배기 활동 양상을 ‘학문 연마와 존주의식(尊朱意識)의 표출’, ‘현지인에 대한 교육과 저술’, ‘문인 인사(人士)와의 교유와 소통’으로 나누어 살펴기도 하였다.¹⁵⁾ 19년이라는 유배기간은 매우 긴 편이며 이 시기에 지은 한시도 143수에 이르러, 유희춘의 유배시기 문학 작품은 유배문학 관련 교육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유희춘의 문학 작품이 현대에 번역 및 재가공 되어 손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다. 한문으로 쓰여진 고전문학 작품은 그 자체의 문학성도 중요하지

12) 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서 편찬한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전남대학교출판부, 2017)을 통해 928명의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이와 관련 김대현·김미선은 “유배인을 현대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선비들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유배에 처해진 경우가 많았고, 그들은 유배지에서 뛰어난 문학적·학술적 성과를 남기거나 지역민과 교류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4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58쪽)

14) 이에 대해서는 안동교·박명희가 번역본 서두에 실은 해제 「박식다문(博識多聞)했던 16세기 한 유학자의 유고」(『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25~3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시가문화연구』 2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122~135쪽.

만, 학생들이 쉽게 번역본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암일기』의 경우 2004년에 번역서 『다시읽는 미암일기』가 5권으로 출간되었으며,¹⁶⁾ 『미암집』의 경우 2013~2014년에 번역서가 4권으로 출간되었다.¹⁷⁾ 이 『미암집』 국역본은 ‘한국고전종합DB’¹⁸⁾의 ‘고전번역서’ 하위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¹⁹⁾ 누구나 쉽게 번역본을 볼 수 있으며, 복사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암일기』의 경우는 유희춘의 삶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당대 삶의 모습을 알기 쉽게 풀어쓴 교양서도 출판되었다. 정창권의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송재용의 『조선시대 선비이야기-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가 그것이다.²⁰⁾ 2004년에 출간된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는 『미암일기』 속 ‘관직생활’, ‘살림살이’, ‘나들이’, ‘재산증식’, ‘부부갈등’, ‘노후생활’ 등 당대 삶의 모습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기록하고 있다. 이외 ‘호남기록문화유산’ 누리집²¹⁾의 ‘스토리텔링’ 하위에 ‘미암일기’라는 제목으로 『미암일기』를 소개한 애니메이션도 탑재되어 있다.²²⁾ 이렇듯 작품 외적으로 현대에 번역이 잘 되어 있고, DB로도 번역·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이해가 쉬운 교양서·애니메이션도 있어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교육자료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가 있다.

16) 유희춘 저, 이백순 역, 이해섭·김대현·최한선 운문, 『다시읽는 미암일기』 1~5, 담양군, 2004.

17) 유희춘 저, 박명희·안동교 역, 『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 유희춘 저, 김세종·안동교·박명희 역, 『미암집』 2, 경인문화사, 2013 ; 유희춘 저, 안동교·박명희·김재희·김세종 역, 『미암집』 3, 경인문화사, 2013 ; 유희춘 저, 안동교·김세종 역, 『미암집』 4, 경인문화사, 2014

18) <http://db.itkc.or.kr/>

19)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prId=&itemId=BT&gubun=book&depth=2&cate1=E&cate2=&dataGubun=서지&dataId=ITKC_BT_0157A&viewSync=OT 검색일 : 2020. 6. 14.

20)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 송재용, 『조선시대 선비이야기-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 제이앤씨, 2008.

21) <http://www.memoryhonam.co.kr/>

22) <http://www.memoryhonam.co.kr/sub14/sub02.php> 검색일 : 2020. 6. 14.

3.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첫째, 필사본 『미암일기』와 문집 『미암집』이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기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문집에 유배시기 문학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는 점, 넷째, 현대에 번역 및 재가공 되어 손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교육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대학의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유희춘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본 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전남대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3.1. 한문 교육에서의 일기 활용

대학의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한문은 기초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이다. 실제 전남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에서 모두 ‘한문’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²³⁾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서 한문을 교육할 때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익히는 것을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문 문장을 독해하면서 고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²⁴⁾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에게는 후자의 방법이 필요하다.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학생에게 한문을 교육할 때, 고전문학 관련 지식

23)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누리집의 교과과정 참조.

<http://korean.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1752&siteId=korean&menuUIType=top> 검색일 : 2020. 6. 23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ttp://koredu.jnu.ac.kr/?i=koredu&c=162/173/859> 검색일 : 2020. 6. 23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24)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한 눈에 파악이 어렵지만 과목명을 통해 중점을 어디에 두는 지를 유추할 수 있다. 전희연의 2016년 박사학위논문(을 보면 ‘한문’이라는 과목명을 사용한 대학은 64개교, ‘한자’라는 과목명을 사용한 대학은 36개교, 과목명에 ‘한문’과 ‘한자’를 혼용한 대학은 17개교였다.(전희연, 「大學 教養漢文 教育의 變遷과 教授·學習方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2쪽)

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생들은 도구로서 한자를 익히고, 문장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번역하는 글의 저자가 누구인지, 문학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등 국문학적 지식도 함께 배울 수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유희춘의 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표 1> 유희춘의 일기 예시

구분	내용
원문	二十九日, 細君率女發潭陽也. 女子羸弱, 不能騎馬. 人或勸女子亦乘輜, 細君以非家翁之命, 辭不敢行. 至全州, 盧府尹禎爲出一輜, 令女子亦乘. 細君力辭, 以爲非家翁之意. 府尹三請竟不聽, 盧公歎伏, 曝曬別監鄭彥信, 亦亟稱於洛中云. ²⁵⁾
번역	아내가 딸을 데리고 담양(潭陽)을 출발하였다. 딸은 몸이 허약하여 말을 탈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딸도 가마를 태우라고 권하였으나 아내는 집안 어른의 명이 없었다며 사양하고 태우지 않았다. 전주에 도착하여 부윤 노진(盧禎)이 가마를 하나 내주면서 딸도 태우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애써 사양하며 집안 어른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다. 부윤이 세 번이나 간청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자 노공이 탄복하였고, 포쇄별감(曝曬別監) 책을 말리는 관리) 정언신(鄭彥信)도 서울에서 여러 번 칭송했다고 한다. ²⁶⁾

위의 1568년 9월 29일의 일기로, 필사본 일기는 물론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전남대학교 한문 교재인 『대학한문』에는 ‘송덕봉(宋德峯)’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이 실려 있다.²⁷⁾ 한문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를 익히고 문장을 번역하게 된다. 이때 한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한자를 읽는 거 자체부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글의 특성상 내용이 다른 산문에 비해 쉬운 편이다.

위의 부분에서도 ‘세군(細君)’, ‘가옹(家翁)’과 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오

25) 柳希春, 『眉巖集』 卷6 <日記> 戊辰年 9月 29日.

26) 유희춘 저, 김세중·안동교·박명희 역, 『미암집』 2, 경인문화사, 2013, 354~355쪽.

27) 대학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大學漢文』,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132쪽, 208쪽.

고, 문장도 비교적 짧으며, 내용도 몸이 허약한 딸을 가마에 태우라고 사람들이 권했으나 아내가 사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어려워하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된 학생들에게도 두렵지 않게 다가갈 수가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한자 음과 뜻, 주요 단어 등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모르는 한자나 단어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 들 것이다.

<표 2> 유희춘의 일기 부분 참조 자료

구분	내용
한자	二: 두 이 十: 열 십 九: 아홉 구 日: 날 일, 해 일 細: 가늘 세 君: 임금 군 率: 거느릴 술, 비율(헤아릴) 률(울) 女: 여자 녀 潭: 못 담 陽: 별 양 羸: 여월 리 弱: 약할 약 能: 능할 능 騎: 말탈 기 馬: 말 마 人: 사람 인 或: 혹 혹 勸: 권할 권 乘: 탈 승 轎: 가마 교 非: 아닐 비 家: 집 가 翁: 늙은이 옹 命: 목숨 명, 명할 명 辭: 말씀 사, 사양할 사 敢: 감히 감 行: 다닐 행 至: 이를 지 全: 온전할 전 州: 고을 주 廬: 화로 로, 성씨 로(노) 府: 마을 부, 곳집 부 尹: 다스릴 윤 禎: 복받을 진 出: 날 출 一: 한 일 令: 하여금 령, 명할 령 力: 힘 력 意: 뜻 의 三: 식 삼 請: 청할 청 竟: 끝낼 경 聽: 들을 청 公: 공변될 공 歎: 탄식할 탄 伏: 엎드릴 복 曝: 쬐 볍, 사나울 포 曬: 쬐 쉼 別: 나눌 별, 다를 별 監: 볼 감 鄭: 나라이름 정 彥: 선비 언 亟: 빠를 극, 자주 기 稱: 일컬을 칭 於: 이조사 어 洛: 강이름 락(낙) 中: 가운데 중
단어 및 설명	* 細君: 아내의 다른 말. 여기서는 유희춘이 자신의 아내 송덕봉을 이른 것임. * 家翁: 집안의 어르신. 여기서는 남편 유희춘을 말할. * 府尹: 한 부(府)의 행정(行政) 사무(事務)를 맡아 보던 으뜸 벼슬 * 曝曬別監: 포쇄별감. 책을 말리는 관리. * 고유명사는 발음 그대로 번역하면 됨. 예) 潭場 全州 廬公, 鄭彥信 * 다음의 경우 현대어에 맞게 순서를 바꾸어 번역 할 것. 예) 廬府尹禎 → 府尹 廬禎 부윤 노진 * 以爲: ~라고 여기다. A 以爲 B: A를 B라고 여기다.

수강생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러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고, 기초 한자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두 이[二]’, ‘열 십[十]’과 같은 쉬운 한자도 음과 뜻을 제시해 주었다. 또 16세기 당시 사용하던 용어, 관직명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자를 익히고 한문 문장을 독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위의 부분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일기문학인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1568년 9월 29일자에는 위의 부분만이 실려 있지만, 실제 필사본 일기에는 안질에 걸린 일, 덕산 수령이 게 50마리를 보내 온 일 등 짝막한 8가지의 일이 더 기록되어 있다.²⁸⁾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일기가 문집에 반영되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알려 줄 수 있다. 또 아내 송덕봉이 등장한 부분을 보면서, 조선시대에 여성 문인이 많지 않은 상황과 남편 유희춘과의 관계 속에서 송덕봉의 작품이 전해질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설명하여 고전 여성문학 관련 기초 지식도 전달할 수 있다.

대개의 학생들은 교양필수 과목을 1학년 때 수강하게 된다. 이때 한문 수업을 통해 한자를 익힐 뿐만 아니라 유희춘·송덕봉과 같은 작가, 『미암일기』라는 일기문학, 일기와 문집의 관계 등 고전문학 관련 지식을 간략하게나마 배우게 된다면, 추후 고전문학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2. 당대 삶과 연계한 한시 교육에 활용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삶을 함께 보아야 작품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를 교육할 때도 작가의 삶을 함께 설명하고, 당대 어떤 상황 속에서 한시를 썼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시대적 배경, 작가, 한시 작품을 유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희춘은 조선 명종 때 대윤(大尹) 일파와 소윤(小尹) 일파의 대립 속에 일

28) 유희춘 저, 이백순 역, 이해섭·김대현·최한선 윤문, 『다시읽는 미암일기』 1, 담양군, 2004, 324쪽.

어난 정치적 옥사인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인해, 함경도 종성에서 19년이나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종성 유배지에서 쓴 한시는 143수에 이른다. 아래는 그중 <중추절에 유후를 모시고 강서에서 노닐다[中秋陪柳侯遊江西]>를 예로 든 것이다.

雲滅秋晴爽氣寒 구름 걷힌 가을날 상쾌한 기운 차가워
 豆江淸興好盤桓 두만강의 맑은 흥 거닐기 좋아라
 山迎赤幟增丹色 산은 붉은 깃발 맞아 붉은 색 더하고
 竿引銀刀供玉盤 낚싯대 은도를 낚아 옥소반에 올리네
 胡沙恬靜偏明眼 오랑캐 사막 조용해 유난히 밝아 보이고
 水樂鏗鏘轉助歡 물소리 맑게 울려 기쁨을 더욱 돕는구나
 遙憶湖南香稻熟 멀리 추억하노니 호남 땅에 벼 익을 때면
 酒邊爭擘蟹臍團 술자리에서 둥근 게 배딱지 다투어 찢었지²⁹⁾

조선시대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집 안에 갇혀만 지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였다. 위 시를 통해 유희춘이 유배 중 추석을 맞이하여 두만강가로 나들이를 나가 낚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더구나 그가 함께 간 사람은 관인으로, 제목에 나타난 ‘유후’는 종성 부사 유사(柳泗)로 추정된다.³⁰⁾ 관인과 교류를 하며 나들이도 나가 경치를 즐기지만, 결국은 고향인 호남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유희춘은 처음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고향과 가깝다하여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문집에는 이때 제주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를 보고[觀海]>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유희춘의 유배시를 교육하면서 유배 중간에 이배되는 상황, 고향과 멀리 가는 것이 더 큰 벌이었던 것, 유배지에서의 삶 등을 함께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유희춘이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고,

29) 柳希春, 『眉巖集』 卷1 <中秋陪柳侯遊江西>; 유희춘 저, 박명희·안동교 역, 『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179쪽.

30) 유희춘 저, 박명희·안동교 역, 위의 책, 178쪽, 각주 336 참조.

많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다.

또 유희춘의 일기에는 송덕봉의 문학 작품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부부의 차운시를 통해 조선시대 양반 부부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다.

平生三到洛陽城 평생 세 번째 한양에 이르르니
 南北佳山舊樣靑 남북의 아름다운 산 예전처럼 푸르구나
 廿載天涯曾泣血 이십 년을 귀양 살며 피눈물 흘리더니
 那知今日錦衣榮 오늘의 금의와 영화 어찌 알았을까³¹⁾

喜君醉裏辦詩城 당신이 술에 취해 시의 성을 쌓아내니
 崔峯警看雲外靑 구름 밖 드높은 하늘을 놀래 바라보네
 京洛風光雖最好 서울 풍경이 비록 좋다 기는 하더라도
 不如歸去饌前榮 집으로 돌아와 밥상 앞 영화만 갖지 못하리³²⁾

앞의 시는 <취중에 우연히[醉中偶吟]>라는 송덕봉의 시이고, 뒤의 시는 유희춘이 <취중에 우연히>에 차운한 시이다. 『미암일기』 1574년 3월 19일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역 덕봉집』에도 실려 있다. 이십 년 가까이 유배생활을 한 후 다시 관직에 올라 한양에 있는 남편에 대한 송덕봉의 소회, 서울 풍경이 좋다지만 아내가 있는 집에 돌아가 밥 먹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유희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부가 서로 시로써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희순에 의하면 송덕봉의 현전 한시 25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 함께 차운하거나 남편에게 준 시로, 13수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³³⁾ 『국역 덕봉집』에 수록된 첫 시도 그러한데, 추운 날에 모주 한 동이를 아내에게 보내며 쓴 유희춘의 시와 송덕봉의 화답시가 그

31) 안동고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안동고·오석환 역, 『국역 덕봉집』,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2012, 60쪽.

32) 안동고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안동고·오석환 역, 위의 책, 61쪽.

33) 문희순, 앞의 논문, 180쪽.

것이다.³⁴⁾ 유희춘 문학 작품을 통해 부부의 시를 함께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부부가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고 화답시를 짓는 면모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전공 수업인 ‘한국한시감상’에서, 위에서 제시한 유희춘의 한시를 수업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수업을 하는 상황이라 출석 및 수업 참여도 확인을 위해 각 주차별로 간략한 한시 감상문을 쓰게 하였는데, 학생들이 쓴 감상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유희춘 한시에 대한 감상문 예시

작성자	내용
학생A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해서 잠시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시인과 비슷한 감정을 자주 느꼈던 것 같다. 분명 대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도 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고는 했다. 특히나 시험 기간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때는 집으로 달려가 집밥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한 뒤 꼭 자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 물론 나는 시인처럼 유배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던 대학에 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즐거움 속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며 읽을 수 있는 시였다. 더불어 ‘호남 땅’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호남주민으로서 하나의 공감대가 더 형성된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아주 오래 전 시임에도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시를 읽을 수 있어 신기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학생B	너무 낭만적인 시였으며, 부부간의 애뜻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허전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 또 예전에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밤마다 자꾸 집에 계시는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도 같이 와서 이렇게 좋은 풍경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하곤 했는데, 아마 유희춘도 아내에게 아름다운 서울 풍경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마음 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좋은 것을 먹고, 볼 때 행복한 감정보다 오히려 쓸쓸한 감정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34) 안동교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안동교·오석환 역, 앞의 책, 31~32쪽.

첫 번째 예시는 <중추절에 유희를 모시고 강서에서 노닐다>에 대한 감상문이고, 두 번째 예시는 <취중에 우연히>에 대한 감상문이다. 두 예시 모두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만 제시한 것으로, 작성자들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학생이다. 해당 주차에 김시습, 서거정, 유희춘 등의 한시를 수업하였고, 그중 자유롭게 한시 1편을 선택해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위의 학생들은 유희춘 한시에 대해 감상문을 썼으며,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공감하며 한시를 감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미암일기』가 실록 편찬에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일기 쓰기를 되돌아보았다는 학생, 유희춘의 한시를 통해 부모님의 연애 편지를 떠올렸다는 학생 등도 있었다.

학생A의 경우 본인이 호남사람이라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하였는데, 대학 소재지 인근 지역 한시 작가의 작품과 인근 지역을 소재로 한 한시 작품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유희춘은 해남에서 출생·성장하였고, 결혼 후에는 아내 송덕봉의 고향인 담양에서도 거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학교를 비롯하여 호남지역 소재 대학 수업에서 유희춘 문학 작품을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한시감상’ 수업에서 1~2주차에 한국한문학 전반을 소개하고 한시의 기본 개념을 가르쳤으며, 이후 시기별·주제별로 한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때는 시기별 중 조선 전기 한시를 감상할 때 유희춘 한시를 교육하였다. 다양한 한시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영물시, 선시, 산수시, 유선시, 영사시, 애정시 등 주제별로 한시를 수업할 때는 시기별에서 이미 살핀 작가의 작품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희춘의 한시도 다시 감상하지 않았지만, 유희춘의 한시는 영사시,³⁵⁾ 애정시 등 주제별로 수업할 때

35) 이와 관련 박명희는 “미암 유희춘은 총 6편의 영사시를 남겼는데, 모두 중국의 역사서를 읽고 나서 지었으며, 역사를 알리고 서술하거나 회고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유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고 하였다.(박명희, 「眉巖 柳希春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 82, 한국언어문학회, 2012, 155~156쪽)

도 활용 가치가 높다.

황수정은 유희춘의 시를 고찰하면서 ‘군은(君恩)과 애민(愛民)의 의지’, ‘가족(家族)에 대한 배려’, ‘산수(山水)를 통한 성찰(省察)’이 시 속에 담겨 있다고 하였다.³⁶⁾ 송재용은 일기를 분석하여 ‘정사(政事), 학문(學問), 문학(文學), 민속(民俗), 과학(科學), 신변잡기(身邊雜記)’로 주요 내용을 분류하였다.³⁷⁾ 이처럼 당대의 다양한 삶이 유희춘 문학 작품에 담겨 있어, 시대적인 삶과 연계하여 한시를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 교육에 활용

문집(文集)은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쓴 시문을 집성한 것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이다. 국어국문학·국어교육을 전공하여 고전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대학생들에게는 문집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보게 되는 한시, 편지 등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의 문집만 해도 3,000종으로 추정되며 많은 문집이 간행되었다.³⁸⁾ 이러한 많은 문집이 어떻게 편찬되고 간행되는지 교육하는 데, 일기와 문집이 함께 남아 있는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집 편찬 과정에서 일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가르칠 수가 있다. 이는 앞서 2장에서 본 유희춘 문학 작품이 교육자료로서 갖는 첫 번째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일기와 문집이 모두 현전하여 필사본 『미암일기』의 내용이 발췌·요약되어 문집 『미암집』 안에 수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당대의 삶을 세세하게 기록한 일기는 본인의 문집 편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집 편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아내 송덕봉의 시문이 『미암일기』 속

36)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한국한시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06, 149~167쪽.

37) 송재용,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87~300쪽.

38)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59쪽.

에 전해져 현대에 문집으로 편찬·간행될 수 있었다. 또 문집 부록에 문집의 저자 관련 기록을 수록하면서 『미암일기』를 활용한 것도 볼 수 있다. 윤복(尹復, 1512~1577)의 『행당유고(杏堂遺稿)』 부록에 수록된 <유사척록(遺事摭錄)>, 김계(金啓, 1528~1574)의 『운강유고(雲江遺稿)』 부록에 수록된 <제현기술(諸賢記述)>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서 문집의 저자인 윤복, 김계 관련 기록을 모은 것인데 『미암일기』 속 기록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³⁹⁾ 현대에 편찬·간행된 『덕봉집』 부록에도 별도로 <미암일기초>가 있어, 『미암일기』 속 송덕봉의 면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딸이 부인을 위하여 무녀(巫女)를 청하려하자,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목구멍의 병증이 분명한데 무당의 제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결단코 청할 수 없다.” 하였다. 부인의 현명한 판단이 이와 같았다.⁴⁰⁾

위는 『덕봉집』 부록에 수록된 <미암일기초> 중 1569년 6월 23일 부분이다. 병과 관련하여 무녀를 인정하지 않는 송덕봉의 태도와 아내를 존중하는 유희춘의 태도를 함께 볼 수가 있다. 『미암일기』 속에 송덕봉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고, 400년이 더 지난 후에 송덕봉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이를 발췌하여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아내, 외조부 등 가족의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다. 유희춘의 일기에 실린 기록을 바탕으로 아내 송덕봉의 문집이 편찬·간행된 것은 누차 언급하였다. 그런데 유희춘이 살아 있을 때에 직접 아내 송덕봉의 문집을 편찬한 일도 있었다. 『미암일기』 1571년 4월 11일자 일기에는 유희춘이 송덕봉의 시를 모아 문집을 만들어 준 데에 대해 송덕봉이 기뻐한 일이 기록되어

39) 구체적인 내용은 김미선의 논문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호남문집을 대상으로」(『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221~226쪽)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宋鍾介, 『德峰集』 <眉巖日記抄> “女子爲夫人, 欲請巫女. 夫人不許曰, 咽喉病, 豈關於巫祀, 斷不可請. 其明斷如此”; 안동교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안동교·오석환 역, 앞의 책, 100~101쪽.

있다.⁴¹⁾ 이 문집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아내의 글을 존중하여 문집으로 편찬해 준 의미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춘의 외조부 최부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사립으로, 그가 남긴 『표해록(漂海錄)』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표류일기로 현대에도 널리 읽히고 있다. 유희춘은 최부의 문집인 『금남집(錦南集)』과 표류일기인 『표해록(漂海錄)』의 편찬·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⁴²⁾ 유희춘 문학 작품을 통해 그 과정도 볼 수가 있다.

선생이 이미 혹독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대(代)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의 평생 저술이 흩어져 없어짐에 열 중 두셋도 남지 않았다. 희춘이 60년 뒤에 수습하여 겨우 소(疏)·기(記)·비명(碑銘) 일곱 수와 함께 『동국통감론(東國通鑑論)』 120수를 얻어 책 두 권을 만들어 간행하여 장래에 전하니, 그 기절(氣節)의 굳세고 특이함과 경륜의 규모(規模)와 의론(議論)의 정밀하고 간절함을 여기에서 살펴보면, 거의 그 한 실마리를 알 수가 있다.⁴³⁾

- 41) “해남에서 사람이 왔는데 정부인의 편지에 이르기를 경림이 와서 정부인의 첩(牒)과 도서(圖書)를 보았고 송진(宋震)이 쓴 부인 시를 보았다며, 아주 기쁘다고 하였고, 더욱 자기의 시가 없어지지 않고 전해지게 되어 비희가 잊갈린다고 했다.[海南人來, 貞夫人書云, 景濂之來, 得見貞夫人闕圖書, 宋震所寫夫人詩, 深以爲喜. 尤以詩傳不朽, 爲悲喜云.]”(유희춘 저, 이백순 역, 이해섭·김대현·최한선 윤문, 『다시읽는 미암일기』 3, 담양군, 2004, 64쪽)
- 42) 이와 관련 『미암일기』에 나타난 퇴계 관련 기사를 고찰한 김대현, 호남사람으로서 최부를 연구한 최한선 등도 유희춘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로 『표해록』 간행을 들었다. 김대현은 “미암은 금남 최부의 외손이 되었고, 훗날 미암이 외조부의 『표해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출판하였던 일은 그의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대현, 『眉巖日記』에 나타난 退溪 관련 기사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267쪽)고 하였고, 최한선은 유희춘에 대해 “『주자대전(朱子大典)』을 교정(校訂)하고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을 편찬했으며, 『미암집(眉巖集)』과 시조 <현근가(獻芹歌)> 등을 남겼고, 외조부 금남의 『표해록(漂海錄)』을 간행했다.”(최한선, 『嶺湖南士林과 錦南 崔溥』,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363쪽)고 설명하였다.
- 43) 柳希春, 『眉巖集』卷3 <錦南先生事實記> “先生既酷沒, 又無嗣子, 其平生著述, 散亡零落, 十無二三. 希春收拾於六十年之後, 僅得疏記碑銘七首并東國通鑑論一百二十首爲二卷, 鈔諸梓以傳將來, 其氣節之勁特, 經綸之規模, 議論之精切, 觀於此者, 尙可以識其一端云.”; 유희춘 저, 김세중·안동고·박명희 역, 앞의 책, 90쪽.

희춘이 북쪽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급히 이 글을 수전(壽傳)할 것을 생각하고 교정을 이미 마쳤지만, 오직 주장하여 조치할 분을 얻기 어려웠다. 마침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한 오공(吳公)이 관서의 안찰사(按察使)로 가게 되어 희춘이 서신으로 간절히 부탁하니 공이 흔연히 허락하여 일할 사람을 모아 그 역사를 완수하여 성공하였다.⁴⁴⁾

위는 각각 『미암집』 권3에 실린 <금남선생사실기>와 <표해록발>의 일부이다. <금남선생사실기>를 통해 최부가 1504년 갑자사화 때 죽임을 당한 후 문집이 간행되지 못하고 시문이 흩어지자, 외손인 유희춘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1571년에 문집을 편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표해록발>을 통해 기나긴 유배에서 돌아온 유희춘이 1569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표해록』의 간행까지 완수한 것을 볼 수 있다.

『금남집』과 『표해록』은 모두 유희춘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편찬이 이루어져, 『미암일기』의 기록 기간과 일자가 겹친다. 그리하여 일기를 통해서도 편찬 및 간행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569년 8월 15일에 『표해록』의 발문을 초한 일, 1569년 8월 23일에 이수륜이 와서 『표해록』의 표지를 쓴 일, 1571년 10월 6일에 정언홍을 시켜 『금남집』의 지문(識文)을 쓰게 한 일, 1571년 10월 7일에 김사중이 와서 『금남집』의 지문에 보충해야 할 곳을 말하자 정언홍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한 일 등이 일기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부분 부분의 일기를 통해서 문집 준비 과정의 일부를 볼 수 있으며, 기문과 발문을 통해 더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이나 스승의 문집 편찬을 위해 흩어져 있는 글을 모으고, 이것을 편집하여 간행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경우가 많다. 유희춘의 경우는 외조부와 아내가 고전문학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문인들로 함께 손꼽히며, 특히 이들도 모두 문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44) 柳希春, 『眉巖集』 卷3 <漂海錄跋> “希春自塞外蒙恩還朝, 亟思所以壽是書者, 校正既了, 惟以主張措置爲難得. 會博雅吳公出按關西, 希春以書懇屬, 公遂欣然而諾, 鳩遊手完其役而訖于成”; 유희춘 저, 김세중·안동교·박명희 역, 앞의 책, 90쪽.

의 문집 편찬에 크게 기여한 유희춘의 일화를 통해 고전문학의 주요 작가를 더 알아가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문집 편찬의 과정까지 연계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보게 될 수업은 다양하다. 전남대학교의 사례로 보자면 국어국문학과와 ‘한국고전문학개론’, ‘한국한시감상’, ‘한국한문학의이해’, ‘한국고전문학사’, ‘한국고수필론’, ‘로컬문학과고전문학’, ‘고전문학과인문콘텐츠’ 등의 과목, 국어교육과의 ‘고전문학작품강독’,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고전산문교육’ 등의 과목⁴⁵⁾에서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을 가르칠 때 유희춘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미암 유희춘은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일기 『미암일기』를 남긴 인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수업에서의 유희춘 문학 작품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자료로서의 의미를 살펴되,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필사본 『미암일기』와 문집 『미암집』이 함께 전하고 있다. 『미암일기』는 당대의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일기문학으로서 문학적 위상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일기와 문집이 함께 남아있어,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료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둘째, 일기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과 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송덕봉의 한시 25수 중 24수가 『미암일기』에 수록되어 전하며, 일기 속에는 송덕봉의 행적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 문인 송덕봉의 문학 작품을 함께

45) 과목명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누리집의 교과과정 참조.

살펴보고,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교육할 수가 있다. 셋째, 문집에 유배시기 문학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19년이라는 유배기간은 매우 긴 편이며 이 시기 한시도 143수에 이르러, 유희춘의 유배시기 문학 작품은 유배문학 관련 교육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유희춘 문학 작품이 현대에 번역 및 재가공 되어 손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다. 작품 외적으로 현대에 번역이 잘 되어 있고, DB로도 번역·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이해가 쉬운 교양서·애니메이션도 있어, 유희춘의 문학 작품은 교육자료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전남대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모색해 보았다.

첫째, 한문 교육에서의 일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한자를 읽는 거 자체부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글의 특성상 내용이 다른 산문에 비해 쉬운 편이며, 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문장도 비교적 짧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어려워하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된 학생들에게도 덜 두렵게 다가갈 수가 있다. 또 한문 수업을 통해 한자를 익힐 뿐만 아니라 유희춘·송덕봉과 같은 작가, 『미암일기』라는 일기문학, 일기와 문집의 관계 등 고전문학 관련 지식을 간략하게나마 배우게 된다면, 추후 고전문학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당대 삶과 연계한 한시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희춘은 조선 명종 때 대운 일파와 소운 일파의 대립 속에 일어난 정치적 옥사인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인해, 19년이나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처음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고향과 가깝다하여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유희춘의 유배시를 교육하면서 유배 중간에 이배되는 상황, 고향과 멀리 가는 것이 더 큰 벌이었던 것, 유배지에서의 삶 등을 함께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또 유희춘 문학 작품을 통해 부부의 시를 함께 볼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부부가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고 화답시를 짓는 면모를 교육할 수가 있다.

셋째, 문집 편찬 관련 배경지식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기와

문집이 모두 현전하여, 필사본 『미암일기』의 내용이 발췌·요약되어 문집 『미암집』 안에 수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또 아내 송덕봉의 시문이 『미암일기』 속에 전해져 현대에 문집이 편찬·간행될 수 있었던 것, 문집 부록에 문집의 저자 관련 기록을 수록하면서 『미암일기』를 활용한 것도 설명할 수가 있다.

유희춘이 살아 있을 때에 직접 아내 송덕봉의 문집을 편찬한 일도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 이 문집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아내의 글을 존중하여 문집으로 편찬해 준 의미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춘의 외조부 최부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희춘은 최부의 문집인 『금남집』과 표류일기인 『표해록』 편찬·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암집』에 실린 <금남선생사실기>와 <표해록발>, 『미암일기』 속 기록을 통해 문집 편찬 및 간행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가 있다. 유희춘의 외조부인 최부, 아내인 송덕봉은,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 주요 문인으로서 배우게 될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집 편찬에 크게 기여한 유희춘의 일화를 보며, 고전문학 주요 작가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유희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교육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족하였다. 필자는 일기와 문집을 함께 볼 때 교육적 활용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 아래, 『미암일기』와 『미암집』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범박하게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국어국문학·국어교육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의 활용 방안만을 살폈으나, 유희춘 문학 작품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수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 유희춘 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고,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미암일기』와 『미암집』이 현대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柳希春, 『眉巖集』(한국문집총간 수록본)
유희춘, 『眉巖日記草』,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7.
유희춘 저, 박명희·안동교 역, 『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유희춘 저, 김세중·안동교·박명희 역, 『미암집』 2, 경인문화사, 2013.
유희춘 저, 안동교·박명희·김재희·김세중 역, 『미암집』 3, 경인문화사, 2013.
유희춘 저, 안동교·김세중 역, 『미암집』 4, 경인문화사, 2014.
유희춘 저, 이백순 역, 이해섭·김대현·최한선 윤문, 『다시읽는 미암일기』 1~5, 담양군, 2004.
안동교 편, 문희순 해제, 문희순·안동교·오석환 역, 『국역 덕봉집』,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2012.
대학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大學漢文』,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송재용, 『조선시대 선비이야기-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 제이앤씨, 2008.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http://koredu.jnu.ac.kr/>) 검색일 : 2020. 6. 23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http://korean.jnu.ac.kr/>) 검색일 : 2020. 6. 23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20. 6. 14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 검색일 : 2020. 6. 14

2. 논저

- 김대현, 「『眉巖日記』에 나타난 退溪 관련 기사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UCI : G704-SER000003090.2010..7.001)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 호남학연구원, 2013.
(UCI : G704-001854.2013..54.002)
- 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4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UCI : G704-001834.2016..29.007)
- 김선명, 「『眉巖日記』를 활용한 생활사 학습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28, 웅진사학회, 2014.
-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UCI : G704-001257.2011..44.008)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시가문화연구』 2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UCI : G704-001062.2012..29.005)
- 박명희, 「眉巖 柳希春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 82, 한국언어문학회, 2012.
(UCI : G704-000390.2012..82.009)
- 송재용, 「『眉巖日記』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해안, 2012.
- 이인옥,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전희연, 「大學 敎養漢文 敎育의 變遷과 敎授·學習方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한선, 「嶺湖南士林과 錦南 崔溥」,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UCI : G704-001062.2011..27.012)
-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한국한시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06.
(UCI : G704-000619.2006..14.006)

| Abstract |

Educational Utilization Measures for Literary Works by Miam Yu Hui-chun

Kim, Mi-sun

Chonnam Univ. Research Professor.

This paper examines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literary works by Yu Hui-chun in classes for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Chapter 2 presents a summary of four educational implications of literary works by Yu Hui-chun. First, a manuscript of the diary *Miamilgi* and a literary Collection *Miamjip* have been handed down to present day. Second, recorded in his diary are the daily life of his wife Song Deok-bong and literary works. Third, his literary collection contains several works written during his exile. Fourth, there are many data about works by Yu Hui-chun that have today been translated and reprocessed, making them easy to use and read.

Further, Chapter 3 presents an exploration of educational utilization measures for works by Yu Hui-chun, using cas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measures for using diaries were offered. If classical Chinese is taught using the easier-type diary *Miamilgi*, students will be more accessible to the learning. In addition, not only will this allow students to learn Chinese characters through classes, but if student

learn knowledge - albeit brief - related to classical literature such as writers like Yu Hui-chun and Song Deok-bong, diary literature like *Miamilgi*, and relations between diaries and literary collections, it will help them to later take class in their specialities on classical literature.

Second, in education on classical Chinese poems related to the then life of Yu Hui-chun,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his works were offered. When educating about poems written during his exile, situations of being released from exile, his life in the place of exile, etc. can be taught together. In addition, through his works, his and his wife's poems can be read, which makes it possible to take a look at husband-wife interaction poems in Joseon.

Third, in education about the background knowledge of compilation of literary collections, measures for utilizing the works were offered. Can be explained to students how the content of manuscript of *Miamilgi* could be extracted, summarized and recorded in *Miamjip*, as how poetic works of his wife Song Deok-bong could be handed down in *Miamilgi*, and be compiled and published today. In addition, from the episode that his maternal grandfather Choi Bu and his wife Song Deok-bong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mpil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 major writers of classical literature can be more learned.

Key words : Yu Hui-chun, *Miamilgi*, *Miamjip*, education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of classical Chinese poems, compilation of literary work, Song Deok-bong